

# 길을 통찰하면 세계사 흐름 한눈에 보인다

## 39가지 길 이야기

일본박학클럽 지음, 서수지 옮김



“지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중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의 말이다. 루쉰의 말을 다르게 정의하자면 ‘모든 역사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길은 역사를 견인했고, 역사는 또한 길을 만들었다.

인류 최초의 위대한 선택을 꼽으라면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사건일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약 20만 년을 전후로 아프리카대륙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만 년 전쯤 인류는 아프리카대륙을 벗어나 다른 대륙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왜 아프리카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을 했을까.

미지를 향한 호기심이었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다. 호기심은 뇌용량이 커지면서 생겨났고, 이는 도구 제작으로 연결됐다. 인류의 선조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이동한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동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경로. 다시 말해 시나이반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한다. 또 하나는 동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반도에 상륙 후 남아시아와 동아시아로 퍼져갔을 것이라는 견해다.

‘길’을 모티브로 인류의 역사를 조명한 책 ‘세계사가 재미있어지는 39가지 길 이야기’는 흥미롭고 이색적이다. 역사 속 사건부터 문화, 정보, 삶의 지혜 등을 조사 연구해 펴내는 일본박학클럽이라는 단체가 저자다. 이들은 지금까지 ‘세계 명화 수수께끼 풀이 가이드-미궁편’, ‘역사의 뒷방의 결말’ 등을 펴냈다.

책에는 고대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꾼 길, 동서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화를 앞당긴 중세의 길, 탐험과 모험을



바이킹의 유럽 침략은 793년 잉글랜드 린디스판섬의 수도원 습격을 계기로 시작됐다. 사진은 당시 수도원 터. (사람과나무사이 제공)

통해 제국주의로 치달은 근세의 길, 오늘날 패권 국가를 만든 근·현대의 길 등 다양한 역사적 길이 나와 있다.

동서 교류를 활발하게 견인했던 길 가운데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빼놓을 수 없다. 게르만민족은 기원전 1천년대 스칸디나비아반도 남부, 유탄트반도 등에 거주했다. 1세기경에는 라인강 우안과 도나우강 유역에까지 도달했지만 그 시기 훈족이라 불리는 유목가미민족 등장으로 긴장이 높아진다. 게르만민족은 서유럽 각지로 이동해 서로마제국 영내에서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했으며 이는 결국 서로마제국 소멸로 이어졌다.

지식혁명의 불길을 세계 전역으로 전파한 것은 제지법이였다.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의 총들은 세계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바스왕조 군대가 사로잡은

당나라군 가운데는 제지공이 끼어 있었는데 이들 장인들이 문명에 변화를 견인했다.

제국주의 시대 탐험과 모험은 유럽의 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었다. 특히 콜럼버스의 항해를 빼놓을 수 없다.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경쟁적으로 신항해시대를 열었고 두 나라는 인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했다.

이밖에 책에는 유럽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꾼 바이킹의 원정길, 동아시아 불교를 완성시킨 현장 스님의 서역 여행길, 주요 열강의 패권 항방에 큰 영향을 미친 수에즈 운하의 길 등 세계 역사 속의 다양한 길이 등장한다. (사람과나무사이·1만85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질문은 조금만=18년 간 ‘GQ KOREA’ 편집장이었던 이충걸의 인터뷰집. 책을 가만 읽다보면 ‘나를 인터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이의 표정과 몸짓, 말투까지 예민하게 포착하고 기분 좋은 어휘로 담는다. 책은 최백호와 강백호, 강유미와 차준환에 이르기까지 11인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써내려간다. “어떤 세계 안에서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결핍을 들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저자의 스킬도 함께. <한겨레출판·1만6000원>



▲기술에게 정의를 묻다=흥미로운 테마, 학자들 사이에서 핫하게 논쟁 중인 테마,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7가지 테마를 다룬 책. 인지향상, 기억제거, 맞춤형이, 로봇, VR, 포스트 휴먼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똑똑해지는 약을 먹어도 될는지, 잊고 싶은 기억을 지울 수 있을지,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 말이다. <그라·2만 원>

▲서울은 기억이다=서울이라는 ‘공간’은 1000만 인구의 삶의 흔적이 담긴 ‘기억의 저장소’다. 책은 3개 섹션으로 나눠 ‘장소의 기억’과 ‘현장의 삶’, ‘공간의 명암’을 풀어낸다. 서대문과 광화문, 정계천과 을지로, 동대문까지 꼭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한번쯤 밟아 보았던 장소를 역사적 시선으로 다룬다. 도시와의 인연은 그게 무엇이든 서사를 만들어내기 마련, 켜켜이 쌓여있는 시간의 무게와 함께 장소성을 부여한다. <서해문집·2만7000원>

▲기죽지 마라=39명의 ‘우리’가 모여 함께 쓴 백기완 선생 2주기 추모집. ‘노동 해방’을 위해 평생을 권력에 맞서 싸운 백기완을 그린다. 투박하지만 솔직한 39편의 글은 결기와 동지의 연대로 버티며 노동 해방을 투쟁한 날들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를 잃으니 절대 양보도,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 ‘1할이 감옥에 갈 각오로 싸운다’

## 어린이·청소년 책



▲문 밖에 사자가 있다=어느날 주인공 아이는 문 밖에 커다랗고 무서운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인공 마음에는 두 아이가 공존한다.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으로 문 밖을 절대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공포감에 압도된 노랑 아이, 눈앞에 닥친 문제를 극복하고 밖으로 나가겠다는 파랑 아이. 우리에게 ‘인생의 사자’는 무엇일까?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라는 주제를 아이의 심리로 또렷하게 풀어낸다. <뜨인돌어린이·1만6000원>

▲우리들의 특별한 축제=마을에서 용경대회가 열리지만 참가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용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한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금요일마다 용을 만들기 시작한다.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조합하고 불이 꺼지면, 대회에 나오는 용만큼 멋지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상을 받기 위해 용만들기에 열심이다. <국민서관·1만4000원>

▲돌아와 늑대 숲을 구해줘=숲으로 들어온 두 발 종족은 늑대를 죽이고 또 죽인다. 그러자 늑대들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암흑 속으로 숨어버리고, 늑대의 노래와

# 미술전시 감상서 아트 컬렉팅까지 예술과 가까워지는 방법

## 미술관을 좋아하게 될 당신에게

김진혁 지음



“누군가 처음부터 차근 차근 가르쳐 주면 좋겠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해보고픈 이들이라면 한 번쯤 해본 생각일 터다. 클래식 공연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림 감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다채로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쉽게 예술과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술을 향유하는 데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좀 더 흥미롭게 예술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초록비책공방이 문화·예술 안내서로 기획한 ‘뉴노멀을 위한 문화·예술 인문서’는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으로 지금까지

‘제2전시실 :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섹션은 미술 작품은 예술가들이 만든다지만 전시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까 궁금증을 갖고 예술가와 미술전시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미술전시장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큐레이터와 갤러리스트, 에듀케이터와 도슨트, 전시 공간 디자이너와 보존과학자까지 관람객이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제3전시실 : 익숙한 시선과 새로운 시선’은 전시장에 들어서면 만나는 사진, 설치,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미술 작품들, 그중에서 난해하다는 현대예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고 건축, 분위기 등 전시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살펴본다.

마지막 ‘제4전시실 : 예술적 경험’은 미술 감상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 예술적 경험이 쌓여 우리의 삶이 예술과 함께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아트굿즈, 리뷰 쓰기, 미술작품 컬렉팅, NFT 아트 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초록비책공방·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1전시실 : 다양한 클래식 (김기홍), ‘합하게 있다 조선 판소리’ (김희재), ‘뮤지컬 익스프레스 슈퍼스타’ (황조교) 등이 나왔다.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일을 하는 김진혁이 펴낸 ‘미술관을 좋아하게 될 당신에게’는 미술과 친근해지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미술전시 감상에서 아트 컬렉팅까지 예술과 가까워지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책은 예술의 세계를 확장시킨 개념미술 등 동시대 예술 작품 감상법부터 미술관 건축, 종이, 글자, 휴식의 과정까지 미술전시를 아우르는 모든 요소를 다룬다.

향유자의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기획한 책은 마치 각각의 전시실을 관람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제1전시실 : 익숙한 곳과 낯선 곳’은 미술관을 시작으로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대안공간, 복합문화공간, 등 전시를 접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 본다. 건물 앞에 놓인 공공미술 작품처럼 우리 곁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